Session 11 Loving God by the Power of the Spirit (Jn. 14:15-24)   
 제 11강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요 14:15-24)

1. Review: Jesus’ command not to allow trouble to dominate our heart   
   복습: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예수의 명령
   1.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not to let trouble dominate their hearts (14:1). There are human dynamics involved as seen in His command to *“let not…”* He responds by giving us peace (14:2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 하셨다 (요 14:1). **“…하지 말라”** 라는예수님의 명령에서 보여지듯 거기에는 인간의 역동성들이 함축되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응대하신다.

1“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a fact], believe also in Me [a command].”   
27My peace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Jn. 14:1, 27)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사실] 또 나를 믿으라 [명령] 27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 (요14:1,27)

* 1. John 13-17 tells how to engage our troubled hearts to overcome grief, fear, shame, and betrayal. Jesus gives us line-upon-line insight into God’s heart and promises that anchor our hearts.   
     The truths in John 13-17 equip us to respond to the end-time troubles highlighted in Matthew 24.   
     요13-17장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에서 슬픔, 두려움, 수치와 배신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들이 우리 마음에 닻을 내리도록 하는 통찰력을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주신다. 요13-17장에 있는 진리는 마24장에 강조된 마지막 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2. In session one, I highlighted ***7 reasons why they were troubled***: just moments before—Jesus exhorted them not to allow their hearts to be troubled on Thursday evening at the last supper (14:1), He spoke of *leaving them by death* (13:36), *Judas’ betrayal* (13:11), and *Peter denying Him* (13:38). On Tuesday, two days earlier, Jesus exhorted them ***not to be troubled*** (Mt. 24:6) in context to the intense pressures that He prophesied would come in Matthew 24 (and its parallel passages in Mark 13 and Luke 21). These pressures included *crisis in the culture* (wars, racial conflict, pestilences, betrayal, etc.), *persecution* (some would be killed, beaten, or imprisoned; Mt. 24:9;   
     Lk. 21:12), *national crisis* destruction of Jerusalem; Lk. 21:20-24) and the *delay of God’s promises.*1강에서 나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7가지 이유**를 강조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목요일 밤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들을 떠날 것**과 (13:36), **유다의 배반** (13:11),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13:38)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 하셨다 (14:1). 이틀 전인 화요일에, 예수님은 마24장(막 13장과 눅 21장의 평행 구절)에서 다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심한 압력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마 24:6). 이러한 압력에는 **문화의 위기**(전쟁, 인종 갈등, 전염병, 배신 등), **박해** (일부는 죽임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투옥될 것임; 마 24:9; 눅 21:12), **국가적 위기** (예루살렘의 멸망; Lk. 21:20-24),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이 포함된다 .

6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See that you are not troubled…7For nation [ethnos] will rise against nation…there will be famines, pestilences, and earthquakes. (Mt. 24:6-7)   
6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7민족[종족]이 민족을…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24:6-7)

* 1. In session one, I highlighted ***8 truths that He told them to believe*** to equip them to not be troubled.   
     1강에서 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믿으라고 말씀하신 8가지 진리**를 강조했다.
  2. In this session we focus on Jesus’ promise that the Spirit will empower us to love and obey God. John 14 is the most detailed passage related to walking out the first commandment.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dynamics of the Trinity* as described in 14:7-27 and applied in 15:1-12. First, Jesus described His relationship to the Father as a Man (14:7-11). This is foundational to understanding how the redeemed are relate to the Father by the Spirit (14:12-27).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다. 요14장은 첫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가장 자세히 풀어 논 성경 구절이다. 우리는 요14:7-27에 설명되어 있고 15:1-12에 적용되어진 **삼위일체의 가족 역동성에 참여**하라고 불리웠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셨다 (14:7-11). 이것은 구속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지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14:12-27).

1. Obedient love (Jn. 14:15)   
   순종하는 사랑 (요 14:15)
   1. Jesus connected prayer in 14:13-14 with the power to love and obey Him in 14:15-16.   
      예수님은 14:13-14의 기도를14:15-16의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능력과 연결시키셨다.

12“…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13And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14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16the Father…will give you another Helper…  
(Jn. 14:12-16)   
12…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13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14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15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 (요14:12-16)

* 1. Jesus emphasized twice that “He will do whatever we ask” in His name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14:13-14). The greatest work of the Spirit is to empower people to love Jesus (14:15). We pray for miracles *from a place* of loving Jesus and *for the purpose* of seeing others love Jesus more.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행하실 것” 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다 (14:13-14).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사람들에게 힘 주시는 것이다 (14:15).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 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
  2. When Jesus said to “ask anything” (14:13), He immediately focused them on the grace to love Him more (14:15). The ultimate “anything” we can ask for is the grace to walk in first commandment. The Father is glorified most by those who grow in the grace to walk in obedient love for Him.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14:13)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다 (14:15).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무엇이든” 지는 첫째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이다. 아버지는 그분을 향한 순종적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3. On Tuesday, Jesus defined loving God as the “first” command, thus identifying it as the highest priority to God—it is always the Spirit’s first agenda and the “first” calling for our life and ministry (Mt. 22:38); here Jesus applied that to loving Him (14:21, 23)—this is our greatest response to God.   
     화요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정의하셨다. 그럼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성령님의 첫 번째 의제이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다 (마 22:38).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 적용하셨다 (14:21, 23).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반응이다.

37You shall love the Lord…38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Mt. 22:37-38)   
37…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38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22:37-38)

* 1. Jesus defined loving God as being deeply rooted in a spirit of obedience (14:15, 21, 23). He calls us to love God on God’s terms or by His definition of love. He is the most qualified to define love since the essence of His being is love (1 Jn. 4:16). There is no such thing as loving God without seeking to obey Him. The sentimental definitions of love in our culture that minimize obedience to Jesus are a deception. Prayer is no substitute for obedience since sin hinders our love for Him.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영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이라고 정의하셨다 (14:15, 21, 23).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시다 (요일 4:16). 하나님께 순종하길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최소화하는 우리 문화의 사랑에 대한 감상적 정의는 속임수이다. 기도는 순종을 대신할 수 없는데 이는 죄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 We do not earn God’s love by obedience, but we express our love to God through it. Obedience to the will of God is foundational for answered prayer and evidence of our love for Jesus.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위한 기초이다.
  3. Loving God is the controlling idea in the following verses in 14:15-28. Jesus linked loving God with obeying God five times in John 14—three times (14:15, 21, 23) He said it in a *positive* way,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Once (14:24) He said it in a *negative* way, “He who does not love Me does not keep My words.” Once (14:31), *He applied it to Himself*.”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4:15-28 의 구절에서 지배적인 개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섯 번 연결 시키셨는데, 요14장에서 세 번 (14:15, 21, 23) 이나 연결시키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한번은 (14: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 또 한 번은 (14:31)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21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it is he who loves Me…23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24He who does not love Me does not keep My words…31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so I do. (Jn. 14:15-31)   
15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21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23…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31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요14:15-31)

* 1. Serving Jesus faithfully and denying our lustful desires are “the theater” that God chose for us to express our love to Him. Jesus takes this personally. Some think of lust as only about immorality, but lusts include covetousness, anger, bitterness, retaliation, complaining, slander, and more.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의 정욕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택하신 “극장” 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취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을 부도덕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욕에는 탐심, 분노, 원한, 보복, 불평, 중상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
  2. Each of us has a different struggle according to our own personality and life circumstances.   
     Thus, we each have a different *“assignment,”* from which we offer our gift of obedient love to God. Our resistance of sinful lusts is often weak and flawed, but it is still valued and honored by the Lord. Weak love is still real love—it is genuine. Our love is not only real when it is mature.   
     우리 각자는 각자의 성격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른 투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른 “**임무**” 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우리는 순종적 사랑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죄 된 정욕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종종 약하고 결점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중하신다. 약한 사랑은 여전히 ​​진정한 사랑이며 진짜이다. 우리의 사랑이 성숙할 때만 진정한 것이 아니다.
  3. ***Five expressions of*** ***loving God—purity*** (refusing immorality, anger, slander), ***humility*** (refusing to be defensive and to draw attention to self), ***generosity*** (refusing covetousness), ***gratitude*** (trusting God and refusing to complain), and ***diligence*** (refusing to quit or not to keep His commitments)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섯 가지 표현** – **순결 (**부도덕, 분노, 중상 모략 거부), **겸손** (방어적 태도 및 자기 자신에게 관심 끌기 거부), **관대함** (탐욕 거부),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 거부), **근면**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만두기를 거부함)
  4. Affection-based obedience is the most reliable—compared to duty-based or fear-based obedience. The King in Song of Solomon described His Bride’s heart of loyal love as a “locked garden” (4:12). The Bride described herself as lovesick (5:8). *“We must be lovesick to be love safe.”*—Yo Herman   
     애정에 근거한 순종은 의무에 근거한 순종이나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에 비교해 가장 신뢰할 수 있다. 아가서에서 왕은 신부의 충성된 사랑의 마음을 “잠근 동산”(4:12)으로 묘사했다. 신부는 사랑 병이라고 스스로 표현했다 (5:8). " **우리가 안전하게 사랑을 하려면 사랑 병에 걸려야만 한다**." - 요 허먼

12A garden locked is My sister, My bride, a spring locked, a fountain sealed. (Song 4:12; ESV)  
12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4:12;ESV)

8…O daughters of Jerusalem, if you find my Beloved, that you tell Him I am lovesick! (Song 5:8)   
8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8)

1. The predominance of the first commandment in God’s end-time Plans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에서 첫 계명의 우위
   1. John made a stunning prophetic declaration that the end-time Church will be a “prepared Bride”   
      (Rev. 19:7). God’s ultimate purpose for creation is to provide an equally yoked Bride for Jesus.   
      The greatest social miracle in history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end-time Church from spiritual compromise to be a prepared Bride*.* TheFather is raising up a *prepared Bride for His worthy Son*.   
      요한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준비된 신부”(계19:7)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적 선언을 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동등하게 멍에를 멜 신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적 기적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영적 타협에서 준비된 신부로 변화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합당한 아들을 위해 준비된 신부**를 일으키고 계신다.

7…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7…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19:7)

* 1. The book of Revelation is about the most glorious love story ever imagined in which Jesus releases His judgments against the Antichrist’s empire—while orchestrating the greatest revival (“the billion soul harvest;” 7:9), the supernatural transformation of the end-time Church from a Laodicean spirit of compromise to a prepared Bride (19:7), and the deliverance and salvation of all Israel (12:13-17), followed by Jesus filling the whole earth with God’s glory in the millennial kingdom (20:4-6).   
     요한계시록은 상상했던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 이야기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한 심판을 풀어 주시는 것이다. 동시에 가장 위대한 부흥 (“십억 영혼의 수확”, 7:9), 라오디게아의 타협의 영으로부터 준비된 신부로의 마지막 때 교회의 초자연적 변화 (19:7), 온 이스라엘의 구출과 구원(12:13-17)을 이루시고, 연이어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채우실 것이다 ( 20:4-6).

14The woman [remnant of Israel] was given two wings…that she might fly into the wilderness to her place, where she is nourished for [3½ years]…from the presence of the serpent. (Rev. 12:14)   
14그 여자[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31/2년]를 양육 받으매 (계12:14)

14“…I will allure her [Israel], will bring her into the wilderness, and speak comfort to her.   
15…she shall sing there…16you will call Me ‘My Husband’… 19I will betroth you to Me forever;   
Yes, I will betroth you to Me in righteousness and…in lovingkindness and mercy.” (Hos. 2:14-19)   
14… 내가 그[이스라엘]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15… 그가 거기서 응대[노래]하기를…16…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19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호2:14-19)

* 1. Jesus’ plan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so glorious that it results in the end-time Church loving Him —more than physical life (12:11)—the saints overcome Satan by loving Jesus even unto death.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예수님을 신체적 생명 보다 더 사랑하도록 한다. 성도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11And they overcame him [Satan]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and they did not love their lives to the death. (Rev. 12:11)   
11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사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12:11)

* 1. Revelation 22:17 is one of the most informative and significant prophecies describing what truths and activities the Spirit will powerfully emphasize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The body of Christ will love Jesus as their Bridegroom King as they walk in their identity as a cherished Bride.   
     계 22: 17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세대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강조하실 진리와 활동을 설명하는 가장 유익하고 의미 심장한 예언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왕으로 사랑할 것이며, 사랑받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걸을 것이다.

17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20“I am coming quickly…” (Rev. 22:17, 20)   
17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20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22:17, 20)

* 1. For the first time the Spirit will universally emphasize the Church’s identity as Jesus’ Bride.   
     As sons of God, we are in the position to experience ***God’s throne*** as heirs of His power (Rev. 3:21; cf. Rom. 8:17). As the Bride, we are in the position to experience ***God’s heart*** (affections).   
     처음으로 성령님은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의 신부로서 보편적으로 강조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계 3:21; cf. 롬 8:17). 또한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마음**(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 The Church can pray, “Come, Lord Jesus, as a Bridegroom!” in three different ways:  
     교회는 “주 예수여, 신랑으로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1. ***Come NEAR US in intimacy*** (individual breakthrough of our heart in God).  
        친밀 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개인적인 돌파).
     2. ***Come TO US in revival*** (regional or national breakthrough of the Spirit in revival).  
        부흥으로 **우리에게로** 오세요 (부흥 안에서 성령님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돌파).
     3. ***Come FOR US in the sky*** (historical breakthrough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세요 (예수 재림의 역사적 돌파).
  3. ***Bridegroom revival***: Jesus will come to His people as a Bridegroom who want Him with all their heart. The end-time *“Bridegroom revival”* will be far more invasive than any revival in history. Jesus will reveal and impart His love in an unprecedented way that will transform the Church.   
     **신랑 부흥**: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신랑으로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신랑 부흥**” 은 역사상 어떤 부흥보다 훨씬 더 깊이 영향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고 나누어 주실 것이다.
  4. The Spirit is raising up His messengers who will reveal the cherishing heart of Jesus and who will call others to define loving Jesus as God’s highest priority. They will make encountering Jesus’ heart and walking in the first commandment the primary focus of their life and ministry.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다른 사람들을 불러낼 메신저들을 일으키고 계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의 삶과 사역의 주된 초점은 첫 계명 안에 걸어 가는 것이다.
  5. Jesus’ last words to the Church are seen in His messages to the 7 churches of Asia (Rev. 2-3).   
     He gave a strong correction to three churches—Ephesus, Sardis, Laodicea—for having drifted into spiritual dullness and compromise. He corrected these three churches for neglecting His primary message to love Him with all their heart. He honored how the church in Ephesus served Him   
     but insisted that they repent and return to loving Him as they did in their (Rev. 2:4).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 (계 2-3장)에 나타나 있다. 그분은 세 교회, 즉 에베소, 사데, 라오디게아가 영적인 둔 함과 타협에 빠진 것을 강력하게 교정하셨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를 무시한 이 세 교회를 시정하셨다. 그분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를 존중했지만, 그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계 2:4)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주장하셨다.

4…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Rev. 2:4)   
4…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2:4)

* 1. On Friday, six days before Passover (the following Thursday night; Jn 12:1)— Jesus honored Mary’s expression of love for Him by pouring costly perfume on Him (Jn. 12:2-8; Mk. 14:3-9).  
     유월절 6일 전 금요일 (다음 목요일 밤, 요 12:1)—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그분에게 부은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을 존중하셨다 (요 12:2-8, 막 14:3- 9).

1Then, six days [Friday] before the Passover…3Mary took a pound of very costly oil of spikenard, anointed the feet of Jesus…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oil… (Jn. 12:1-3)   
1유월절 엿새 전[금요일]에…3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12:1,3)

3…she [Mary] broke the flask and poured it on His head…9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told as a memorial to her.” (Mk. 14:3, 9)   
3… 한 여자[마리아]가 …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9…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막 14:3,9)

* 1. On Tuesday, Jesus spoke of the King preparing a wedding for His son (Mt. 22:1). Later that day, Jesus spoke on the end times presenting Himself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in Matthew 24-25. Jesus is a King with power, a Bridegroom with desire for relationship, and a Judge with zeal to remove everything that hinders love. He emphasized cultivating the “oil of intimacy” (Mt. 25:1-13).   
     화요일에, 예수님은 아들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왕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 22:1). 그날 늦게 예수님은 마24-25장에서 자신을 신랑이며, 왕이고, 심판 자라고 소개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왕이시며,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신랑이시며,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는 열심의 재판관이시다. 예수님은 “친밀의 기름”(마 25:1-13)을 구하는 것을 강조했다.

2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certain king who arranged a marriage for his son, 3and sent out his servants to call those who were invited to the wedding…8The wedding is ready… (Mt. 22:2-8)   
2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3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8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마22:2-8)

1Then the kingdom…shall be likened to ten virgins who…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4the wise took oil … 6At midnight a cry was heard: “Behold, the bridegroom is coming…”  
9The wise answered saying, “…go to those who sell, and buy [oil] for yourselves.” (Mt. 25:1-9)   
1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4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6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9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기름] 사라 하니 (마25:1-9)

* 1. We must interpret the 150 chapters on the end times through the lens of a Bridegroom, King, and Judge and His lovesick Bride who is prepared for the eschatological wedding day. We cannot rightly interpret Jesus’ end-time message in Matthew 24-25 without growing in our love for Jesus.  
     신랑이며, 왕 되시고, 심판 자이신 그 분과 그의 사랑 병에 걸린 신부의 종말론적 혼인 날을 준비하는 렌즈를 통해 마지막 때를 말하는 150장을 해석해야 한다. 마24-2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2. Jesus’ last prophetic declaration over Israel was, “You shall love the Lord” (Mt. 22:37).  
     Moses prophesied Israel would love God with all their heart in the end times (Deut. 30:1-6).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적 선언은 “주를 사랑하라”(마 22:37)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 30:1-6).

6The Lord…will circumcise your heart…to love the Lord…with all your heart. (Deut. 30:6)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 1. We are to enjoy God by the Spirit as our “home.” Believers will find their “home” in God by living in union with God in obedient love as vessels of His power and presence. Our spiritual capacity to receive and return God's love increases as we increase in our obedient love.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을 우리의 “집” 으로 누려야 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그릇으로서 순종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활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집” 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답하는 영적 능력은 우리의 순종하는 사랑이 커질수록 커진다.

21…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to him …23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Jn. 14:21, 23)   
21…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23…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21,23)

20…If anyone…opens the door, I will come…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Rev. 3:20)   
20… 누구든지 …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 + 1. The Father loves the life choices of His children and enjoys His relationship with them.   
       This results in believers having an enlarged capacity to feel and experience the Father’s love.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의 선택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즐기신다. 이것은 믿는 자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한다.
    2. The Father loves all redemptively (Jn. 3:16) but enjoys the relationship of those who obey.   
       아버지는 만물을 구속적으로 사랑하시지만(요 3:16) 순종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즐기신다.